월요광장

망국의 분노에 목숨을 끊다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지·인·용(智·仁·勇)은 삼덕(三德)이라 하여 인간이라면 지녀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그중에서도 용(勇), 즉 용기야말로 저절로 지녀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여 어떤 경우라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을 힘찬 마음을 지녀야만 가능해지는 덕의 하나이다. 때문에 불의에 분노하는 용기의 뜻이 굳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올바른 역사 발전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래서 옛날의 경전(經傳)에도 '혈기의 분노'(血氣之怒)야 수양을 통해 참아 내도록 해야지만 '의리의 분노'(義理之怒)야 언제라도 폭발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호남 사람들 중에는 예로부터 의리의 분노에 견디지 못하고 보통 사람으로서야 생각지도 못하는 용기를 폭발하여 역사를 움직이게 했던 의사(義士), 지사(志士), 열사(烈士)들이 참으로 많았었다.

호남의 광양 출신이지만 구례에서 오래 살아갔던 매천 황현(黃玹 : 1855~1910) 선생이 있다. 선생은 한말 최고의 시인임은 모두가 인정하는데, 겸하여 선생이 의사·지사·열사였음을 알게 되면 그러한 애국지사가 우리 고장 출신이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은 역사학자로서도 탁월한 분이어서 한말 최고의 역사책인 '매천야록'(梅泉野錄)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아주 짤막하게 매천 선생 자신에 대한 글로 책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그 부분을 읽다 보면 매천의 분노와 용기를 알 수 있어 가슴이 뛰고 더 큰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대한제국이 망하자 앞전의 진사 황현은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韓亡 前進士黃玹 仰藥死之)라는 몇 자의 역사적 사실은 망국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며, 의리에의 분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가를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인가. 인간의 본능은 호생오사(好生惡死),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는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독약을 입에 넣고 목숨을 끊는 용기를 감행했으니, 이 얼마나 뜨거운 의사·지사·열사였던가.

'매천야록'의 마지막 글은 매천의 절사 이후 정리된 내용이겠지만, 선생의 짤막한 약력을 소개하고, 죽음에 임하여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정리해 놓은 절명시(絕命詩) 네 편을 제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선생의 친필 글씨로 죽음 앞에 앉아 곧고 바른 글씨로 선비의 용기와 기상을 보여 주는 천하의 귀한 작품이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오/ 무궁화 피는 우리 나라 이미 망했구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회고하니/ 글자나 아는 사람 되기 어렵기도 하도다"(鳥獸哀鳴海岳嚬/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망해 버린 나라에 대한 슬픔도 지극하지만, 글자나 아는 사람, 지식인이자 선비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토로하는 대목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불러일으켜 주는 점이 더욱 애절하다. 그렇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적당하고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내 일찍 나라 위해 벼슬도 한적 없으니/ 이렇게 목숨 끊음은 인(仁)을 이룸이지 충(忠)은 아니라오"(曾無支厦半椽功/ 只是成仁不是忠)

겨우 진사(進士)라는 자격증 하나 있을 뿐, 쥐꼬리만 한 벼슬도 한 적 없으니 나라 위해 죽을 이유도 없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 정신 때문에 죽어 간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遺書)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선비를 양성했는데 나라가 망해 가는 날, 한 선비라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야 이게 어찌 나라이겠느냐. 그래서 나라도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매천 선생은 한말 망국의 계절에 호남인들의 선비정신을 온 천하에 알려준 위대한 지사(志士)였다. 호남인들의 의혼(義魂)과 무서운 용기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한 대목이 바로 매천 선생의 절사(節死)였다. 지금 구례에 가면 매천 선생의 의혼을 모시는 '매천사'(梅泉祠)가 있고 그의 유적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다. 국민이라면, 호남인이라면 한 번쯤 매천사를 찾아가 묵념이라도 올리고 절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법조칼럼

판사의 속내

권 노 을
광주지방법원 판사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건수도 많고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진행하는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 머리만 긁적이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재판보다는 분풀이에 열중하시는 분, 무슨 말씀을 드려도 화만 내시는 분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동안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는 점은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임무는 이분들을 마음 고생에서 해방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분쟁을 잘 매듭지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에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해봤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고 당사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잘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다음 재판을 준비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먼저 물어볼지 고민하고, 적정한 화해안도 만들어 봅니다. 다음 재판이 시작되고 나름 준비한 대로 얘기를 꺼내봅니다. 예상대로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시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판사로 일하는 동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오신 분들의 따가운 눈총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에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로서는 그분들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을 앞둔 걱정과 긴장 외에도 혹시나 저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가지신 것은 아닌지, 편파적이라고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도 갖게 됩니다. 제 속을 잘 모르셔서 오해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법대'(法臺)에 앉아 있는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판사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신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 의견을 따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 싸우시려고 나오신 것 아닌가요."입니다. 법정에서 저나 당사자분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온 목적은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싸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법정에 들어갑니다.

법정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속이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아쉽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끊어야할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적어서 미리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글을 쓰시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싸워도 될 거야'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저의 바람입니다. 신뢰의 눈빛을 받는 훌륭한 판사가 되기에는 모자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가운 눈총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 나오는 그날이 그만 싸우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기 고

국정운영 계획과 지역공약

이 종 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획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간 연계성 확보, 국정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또한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지역공약이다. 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천명한 만큼 우리 국민은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새로운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면서 결실을 보겠다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지역간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근간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이어야 할 것이다. 잠재력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광주의 발전비전 역시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육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공항 이전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성공지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이다. 광주전남 상생 분야에서는 5·18 정신 계승과 진상규명, 에너지 밸리조성, 한전공대 설립,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 등이 있다.

광주에 대한 공약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광주가 제안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당시 광주는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논의와 시민토론회를 거쳐 대선공약을 준비했고,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중심도시 조성, 45억 아시아인의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인프라 구축, 5·18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정신계승 등 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는 공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약사업의 무게는 사업 기간과 사업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아야 하고 지역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모든 사업의 최종목적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권도시 이미지와 중첩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도 연계된다.

최근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손목시계가 공개됐다. 청와대가 선보인 기념품용 손목시계 앞면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와 문 대통령 친필 사인이, 시계 뒷면과 포장상자 안쪽 면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다. 청와대 측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문구를 각인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본주의 정치철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는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닮았다.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행복을 이루어내는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공장식 밀집 사육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가의 경각심 부족과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비좁은 공간에 가능한 한 많은 닭을 가둬 놓고 기르는 공장식 밀집 사육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알 낳는 닭 사육장에서는 대부분 A4 용지(0.06㎡)보다 좁은 공간에서 산란계를 감금틀에 가둬 놓고 키운다. 질병의 위험이나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닭을 '알 낳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장식 생산 방식은 국내 산란계 사육장의 99%를 차지한다고 한다.

닭은 진드기 등 몸에 기생하는 해충을 털어 내기 위해 흙에 몸을 비비는 '흙 목욕'을 하고 발 등을 이용해 진드기와 벼룩을 없앤다. 하지만 좁은 철제 우리에 갇힌 산란계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다. 농가에서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다.

밀집 사육은 또한 닭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대안으로 꼽히는 동물 복지 농장은 닭을 철제 우리가 아니라 짚이나 톱밥, 흙, 모래 등을 깐 평평한 땅에서 방사해 사육한다. 핀란드에서는 공장식 밀집 사육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가 도입됐다. 전남에서는 15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이들 농장의 닭들은 스스로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일이 없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축산 농가들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전환을 꺼리는 탓이다. 정부는 밀식 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농장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줘야 할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변별력 강화 등 보완해야

광주에서 치러진 첫 블라인드 채용은 일단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수험생의 모든 조건을 가려 공정한 시험을 기대했지만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정부의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확대 방침에 따라 역무원과 미화·시설직 등 무기 계약직 37명을 서류와 면접 심사 등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이번 공채에는 총 565명이 지원했는데(경쟁률 15.3대 1) 처음 실시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점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선발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업무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점을 고려,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쳤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들의 성명, 학력, 나이, 출신지, 직무와 관련 없는 경력 등은 제공하지 않는 면접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업무 관련자나 적합자를 뽑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 565명의 지원자 중 서류가 불충분한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자가 서류 심사를 통과, 사실상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도 역무직에 지원한 철도 업무 경험자, 철도 관련 전공자 15명 중 합격자는 1명에 불과했다. 광주도시철도에서 수개월에서 1년가량 근무한 유경험자 20여 명 중에서도 합격자는 1명에 그쳐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처음 실시된 제도인 탓에 변별력이 떨어지고 탈락자들의 반발도 그만큼 큰 게 사실이다. 학력과 경력 등 모든 스펙과 무관하게 인재를 뽑는 것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철도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철도 업무 경험자 등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가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회고록

'한중록'(閑中錄)은 조선시대 혜경궁 홍씨(1735~1815)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의 생모이면서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28세에 시아버지 영조에 의해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참변을 비롯해 당대의 종사(宗社)와 관련된 당쟁 등이 기술돼 있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된 책에는 궁중 생활 회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배후설 혐의를 받는 친정아버지 홍봉한 등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내용도 있다.

학자들 가운데는 한중록이 멸문지화를 당한 친정의 누명을 호소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말의 사실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혹여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조선이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역사로 점철된 나라라는 선입견 때문일 터다.

그러나 이십 대에 청상이 된 혜경궁 홍씨가 남편의 참변과 관련된 비사를 기술함에 있어 거짓이나 왜곡을 했을까 싶다. 사별의 비통함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 말이다. 한중록은 군데군데 구성의 허술함이 엿보이는데, 그것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 기획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당시를 기술하는 현장감이나 전아한 문체는 궁중문학의 정수, 국보급 회고록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

광주의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돌풍과 맞물려 '전두환 회고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는 당시의 사진과 기록이라는 철저한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전두환 회고록'과 이전에 발간된 '이순자 자서전'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5·18 학살의 책임자인 전 씨는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항변했다. 그들의 회고록과 자서전은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억의 재구성일 뿐이다. 더욱이 두 책은 큰아들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자회사에서 발간됐다. 교묘한 기획하에 '셀프 출판'이 이루어졌고 왜곡이 가해졌음을 뒷받침한다. 회고록을 쓰기 전 '피 묻은 손을 씻는' 진정한 참회가 먼저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